

**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, '한상경제권 구축' 논의 첫 걸음****- 리딩CEO포럼 통해 한상경제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 제시**

□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4.18.(금), '한상 경제권 구축'을 주제로 리딩CEO포럼이 개최됐다.

○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모임인 '리딩CEO포럼'은 2002년 제1차 세계한상대회 (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) 계기 발족한 대회 자문기구로,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□ 이번 포럼에는 리딩 CEO 회원은 물론, 대회 운영위원, YBLN (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),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등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한상 네트워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.

\* YBLN : 2002년 '차세대 경제 리더 포럼'을 시작으로 결성된 한민족 차세대 경제인들의 모임으로 35개국 199명으로 구성

\*\* 재외동포비즈니스 자문단(OK Biz) : 2024년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발족한 재외동포경제인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자문단

□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은 “한미 양국의 특별한 동맹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양국이 글로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파트너로 함께 서 있다” 고 설명하며, 참석자들에게 “공동의 비전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” 고 당부했다.

□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‘글로벌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한 한상의

역할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“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확대 등 통상 압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,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상 네트워크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연결하는 ‘한상경제권’ 구축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”이라며, “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,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이어,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‘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’에 대해 발표하였다. 이 교수는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간다면 ‘한상 경제권 구축’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세금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조성, 이스라엘 베트남 등 해외 유사 사례 벤치마킹 및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변화 등을 제안했다.
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예측불허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전 세계 한상기업들이 각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 “그러한 역량 결집의 플랫폼이 될 ‘한상 경제권’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”고 평가했다. 이어 “이번 포럼이 한상과 국내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, 나아가 한민족 경제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끝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<br>동포경제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이 경 아 | 032-585-3220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오 은 아 | 032-585-3227 |